



청소년이 제안하는

국회 몽실 정책 토론회

夢實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다!

온종일돌봄 정책을 실현하는 지역사회 협력모델 청소년 자치학교
“몽실학교” 사례의 전국적 확산 방안 제안



2018. 2. 23

금 14:00~15:40

국회도서관 강당 지하1층

| 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상 의원실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몽실정책마켓 추진위원회

PROGRAM



청소년이 제안하는 국회 몽실 정책 토론회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문화상 의원실,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몽실정책마켓 추진위원회
- 일 시 | 2018년 2월 23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강당 지하1층

제1부 정책토론회

- 국민의례
- 환영사 |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 인사말 | 문화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원장 (민주연구원)
- 발 제 | 한예준 (학교밖청소년모임 유자청)
- 발 표 | 장세인 (의정부여고)
이예진 대표 (학교밖청소년)
- 토 론 | 김용련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제2부 토크콘서트

- 패 널 | 김민석 원장 (민주연구원)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 진 행 | 이한솔 길잡이교사 (몽실학교)

CONTENTS

청소년이 제안하는 국회 몽실 정책 토론회

❖ 발제문

- 몽실학교는 전국 곳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1
한예준 (학교밖청소년모임 유자청)

❖ 발표문

- 몽실 학교에서 이렇게 성장했어요. 11
장세인 (의정부여고)
- 청소년이 제안하는 국회 몽실 정책 토론회 사례 발표 17
이예진 대표 (학교밖청소년)

❖ 토론문

- 몽실학교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23
김용련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환영사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민주연구원, 경기도교육청, 문화상 의원실이 공동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11월, 이재정교육감님과 함께 저희 민주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민주공대’ 프로그램을 촬영하던 중에, 이재정 교육감께서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꿈의 학교’를 소개해 주셨고 몽실학교 방문을 제안하셨습니다.

몽실학교 방문을 조율하다가, 청소년들이 직접 국회에서 청소년 정책을 제안을 해보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정교육감님의 제안이 발전되어, 미래 주인공들이 직접 국회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매우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몽실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배움의 욕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간 활용 등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주연구원에서는 올해 시행될 지방선거의 정책 개발을 위해 전국을 돌면서 의견을 받았는데, 몽실학교와 같은 시도가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되어 우리 청소년들의 자발적 학습 문화 공간에 대한 욕구가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자치 배움터 운영을 위해 지역의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 지역의 교육네트워크 안에서 청소년들의 배움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역의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선순환적인 흐름을 형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몽실학교가 추구한 혁신교육의 가치와 지역사회 협력에 기반을 두는 교육공동체의 움직임에 미래교육의 비전과 정책의 대안적 방안을 담아 오늘의 토론회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좋은 정책으로 가다듬는 작업을 우리 민주연구원에서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떠올리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소명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연구원장 **김민석**

인사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입니다. 청소년이 제안하는 국회 몽실(몽실) 토론회를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夢 열매實 몽실학교는 꿈을 이루는 학교입니다. 몽실학교는 학생이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학교입니다. 몽실학교는 학교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으로 세워진 배움터입니다. 우리나라 학교가 몽실학교처럼 모두 바뀌면 학생들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몽실학교의 연혁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정부 지역의 교사,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간 교육 공동체와 학생들의 자발적 의지가 모여 만든 꿈이룸 배움터에서 태동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자발적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북부청사를 리모델링 하여 2016년 9월 몽실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몽실학교에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38개 자치 프로젝트, 꿈의학교, 꿈의대학, 의정부 교육지원청의 에듀클러스트 강좌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 73,000여명이 몽실학교를 이용했으며 하루 평균 192명이 찾는 명실상부한 청소년 전용 공간이자 배움터로 발전하였습니다.

2018년 몽실학교는 학생주도 프로젝트 과정, 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과정, 학교 밖 배움터 과정, 학생주도교육 확산을 위한 연수 및 네트워크 운영 등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경기도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몽실학교는 학교 중심,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미래교육 패러다임을 실현해 학생 중심 교육의 수준을 끌어 올릴 것입니다. 몽실학교에서 더욱 많은 학생들이 행복한 배움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몽실학교와 같은 학생자치 배움터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지역의 학생들과 교육공동체 분들의 희망을 담아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몽실학교와 같은 지역사회 협력 청소년 자치 배움터가 온종일 돌봄 정책의 좋은 사례로 전국 곳곳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인사말

문화상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의 끼를 마음껏 발휘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소년을 위해 교육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오직 대학 입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만큼 유년, 청소년기를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라도 극히 드뭅니다.

OECD가 2017년 4월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2015 학생 웰빙 보고서’를 보면 학교 안팎에서 주당 60시간 넘게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23.2%)이 OECD 평균(13.3%) 두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지수도 OECD 28개 국가 중 27위입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재능, 끼가 무엇인지 모르고 경주마와 같이 앞만 보고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제4차 혁명의 쓰나미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의정부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2년 전 의정부의 옛 북부교육청 건물에 심은 ‘몽실학교’ 즉 ‘꿈을 이루는 학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몽실학교는 자기 주도의 미래형 교육입니다.

학생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의 울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 중, 고 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혼자가 아닌 함께 발견하고 서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교육기부로 생생한 직업체험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몽실학교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을 배우면서, 각자의 꿈을 향한 도전,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개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의정부 몽실학교의 희망이 전국방방곡곡 널리 퍼져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히 밝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님과 경기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님,

국회 몽실 정책토론회에서 맹활약을 해주실 패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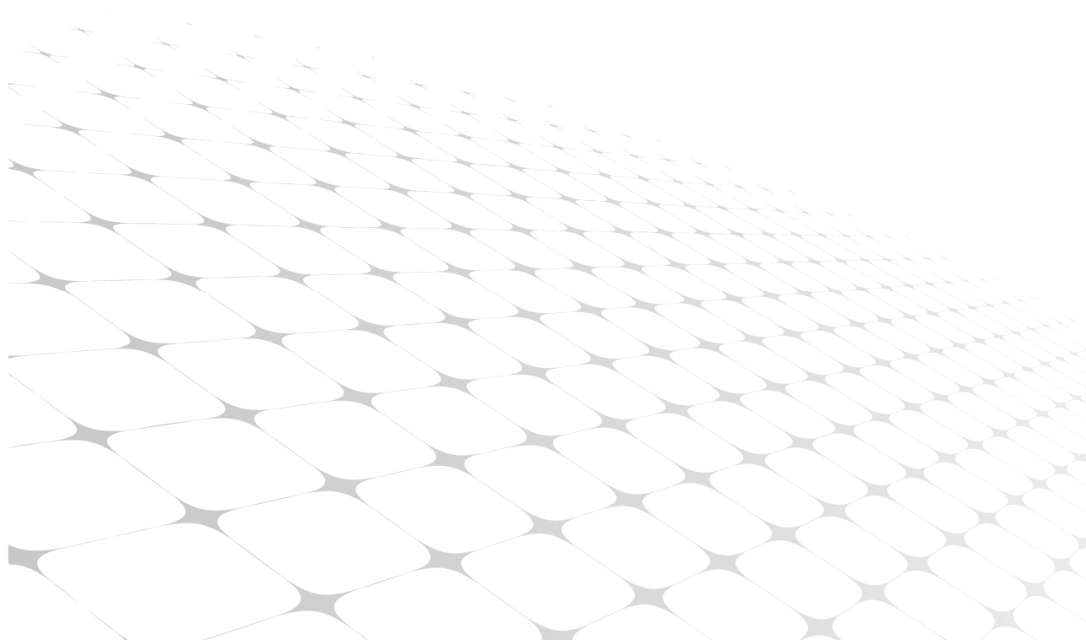
그리고 대한민국 희망을 지켜보기 위해 함께 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한분 한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문희상**

발 제 문

몽실학교는 전국 곳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한예준 (몽실학교 유자청)



몽실학교는 전국 곳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한예준 몽실학교 유자청(19살)

■ 나에게 몽실학교란?

몽실학교 학교 밖 청소년 과정인 유자청에 재학중인 19살 한예준입니다. 대안학교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몽실학교에서 학교 밖 과정을 다닌 지 벌써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검정고시는 통과했고 19살 1년 동안 몽실학교에서 좀 더 신나면서도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몽실학교는 많은 것을 제게 주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정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데도 학교처럼 소속감을 느끼게 해 주고 마음껏 배우고 싶은 내용을 찾아서 배우고 있습니다.

몽실학교에서는 또한 혼자 배우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기획한 프로젝트로 팀을 만들고 계획을 함께 세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공동체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은 다양함 그 자체입니다. 프로젝트 팀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함께 활동하고 있고 학교도 다 다릅니다. 의정부에 몽실학교가 있다보니 의정부 아이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양주에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 연천에서도, 고양시에서도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연천이나 고양시에서 오려면 2시간은 넘게 걸리는데도 활동을 하기 위해 오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몽실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생 주도 프로젝트가 펼쳐집니다. 벌을 키우는 도시 양봉부터 출판, 밴드, 카페 운영, 샌드아트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문화예술 분야를 거쳐 4차 산업혁명에서 거론되는 아두이노와 3D 프린터 활용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청소년들의 관심사가 펼쳐지고 청소년들은 원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몽실학교에서는 청소년들만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지지고 세밀하게 지원해 주는 마을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쳐준다고 해서 길잡이 교사라고 부릅니다. 이 분들은 진짜 선생님도 있고 친구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몽실학교를 졸업한 우리 선배들도 대학생이 되어 길잡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얼른 졸업하면 길잡이 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하기도 바쁠텐데 우리를 위해서 주말을 기꺼이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성장한 것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합니다. 길잡이 교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가 프로젝트 운영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 큰 도움을 줍니다. 프로젝트 활동에 있어 전문가를 연결해 주고 안전한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도와 주고 있습니다. 길잡이 교사들의 훌륭한 지원은 우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몽실학교는 정말 큰 공간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어 우리 청소년들의 프로젝트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몽실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있기에 매일 새로운 상상을 펼치고 안전하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 고마운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몽실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 몽실학교를 정의 내리면 한마디로 “용광로”입니다. 용광로같이 모든 걸 녹여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뜨겁고 따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뜨겁고 따뜻한 곳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 몽실학교와 같은 청소년 자치 배움터가 필요한 이유!

몽실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도 있지만 몽실학교는 훨씬 더 청소년들의 보금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존 청소년 시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몽실학교에 붙이는 수식어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관련 시설은 많았지만 청소년은 이용대상 일 뿐이었습니다. 몽실학교는 다릅니다. 몽실학교의 교육내용과 몽실학교 운영 전반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쉬운 전환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교육내용과 공간 운영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결과 청소년들이 몽실학교의 주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순 이용객과 주인의 차이는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몽실학교 교육 내용의 핵심은 학생 주도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학생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기획하고 운영 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를 비롯해서 청소년 교육 시설들은 학생에게 이런 기획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펼쳐 놓은 교육 내용을 단순히 선택하는 정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육내용에 그대로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몽실학교에서는 이와 다르게 학생들이 기획하고 운영하게 했더니 배움의 자발성이 생겨나고 있고 다양한 상상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팀을 이루어 협업하게 하는 과정을 거쳤더니 의사소통 능력이나 협업 능력이 크게 발달하였고 공동체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경쟁이 심하다 보니 자기 혼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컸었는데 여기서는 경쟁보다 협력이 얼마나 더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몽실학교에서는 실패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자체를 존중 받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도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 보다 이렇게 저렇게 해 보면 더 좋겠다는 조언을 받습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이 우리를 몽실학교로 모이게 하고 또 함께 도전하게 만듭니다. 다양한 꿈을 무시당하고 성적으로 줄 세우는 교육보다 다양성을 인정받고 각자의 빛깔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곳이 몽실학교였습니다.

몽실학교는 또한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쉼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꼭 무엇을 배우지 않아도 되고, 꼭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에서 다시 무엇인가를 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런 공간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몽실학교는 처음 설계부터 청소년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으며 충분히 쉼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몽실학교에 청소년들이 모여들면서 즐거움을 찾고 자기의 꿈을 실현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 교육에 도움이 되고 싶어 는 마을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청년, 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 운영을 지원하며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시청에서도 힘을 모아가며 이 배움터가 청소년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우리들을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이 지역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설계한 프로젝트에도 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몽실학교는 큰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몽실학교는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단 몽실학교처럼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몽실학교가 곳곳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몽실학교에서 성장한 우리들은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길잡이 선생님들과 어른들께 이렇게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몽실학교는 의정부에만 있습니다만 이런 몽실학교와 같은 청소년 자치 배움터가 전국 곳곳에 있어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공부를 잘 하는 학생만이 우대 받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람의 능력이 정말 다양한데 왜 공부 잘 하는 능력만 중요하게 인정받는 다는 건 다른 능력이 발달한 아이들에게는 정말 자존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능력이 존중받고 인정 받는 곳이 학교라면 제일 좋겠지만 입시라는 벽이 가로막혀 있어 참 어렵습니다. 학교도 학교대로 아이들 각자의 빛깔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바뀌어 나가야 하겠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기에 우리의 청소년기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우리의 빛깔을 찾고 싶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의 현재를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빛깔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몽실학교였고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었기에 몽실학교와 같은 청소년 자치 배움터가 전국 곳곳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몽실학교와 같은 청소년 자치 배움터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청소년으로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정책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돌봄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민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청소년 관련 내용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였습니다. 청소년 교육 정책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외에는 전혀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정책에는 구체적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도 무언가를 계속 배워야만 하는 곳으로 보이기에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이 나올 수는 정말 없는 것인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마을학교 공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마을학교 공약을 보니 몽실학교와 유사한 형태의 마을학교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학교 안 마을학교(A형)과 학교 밖 마을학교(B형)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학교 밖 마을학교(B형)가 몽실학교와 거의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아침과 방과후에 돌봄이 진행되고 낮에는 학교 밖 아이들이 생활하고 저녁과 방과후에는 청소년 학교가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몽실학교와 참 유사한 운영이었습니다. 이걸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마을 어른들이 온종일 마을학교 교사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 고용창출을 노리는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온종일 마을학교(A형)도 초등학교 곳곳에 남아도는 학교 공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안성 백성초등학교에서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방과후와 주말에 개방하여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배움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학교가 얼마나 개방할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성 백성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께서 청소년 교육에 의지를 갖고 책임을 지고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데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를 개방해 주신 그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지역의 어른들도 몽실학교와 같은 배움터가 자기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몽실학교가 개장한 이래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분들이 탐방 오셨습니다. 교육청이나 시청 관계자도 계셨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으셨으며 마을 활동가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이 분들이 오셔서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셨고 자기 지역에 꼭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러워만 하지 않고 현재 각 지역으로 가셔서 몽실학교와 비슷한 청소년 자치 배움터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창원, 전주, 군산, 익산, 강릉, 안성, 세종 등에서 이미 공간을 확보하고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건강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젠 의정부 몽실학교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젠 국가가 이런 흐름을 파악하고 국가 정책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별로 남아도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서 정책을 차근히 추진해 주신다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램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몽실학교와 같은 청소년 자치 배움터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 온종일 마을학교 만들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몽실학교와 같은 온종일 마을학교 만드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기도 하겠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공간 확보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안은 빈 교실이 늘어나고 있는 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빈 교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몽실학교 옆에 있는 의정부 중앙초등학교도 3층 건물이 거의 1동이 빌 정도로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얼마든지 온종일 마을학교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공간을 운영하는데 있어 선생님들과 협의해 보니 온전히 책임은 학교가 지지 않고 온종일 마을학교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봄과 방과후 교육, 청소년 교육까지 학교가 맡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가 맡아주면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크게는 1동, 작게는 1층을 온종일 마을학교로 만드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듯 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현재 각 지역마다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형태를 청소년 자치 배움터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설은 훌륭하지만 청소년은 이용대상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율이 많이 떨어지고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는 곳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나열하기보다 몽실학교 처럼 공간과 배움의 주인이 청소년이 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꾸어 주시면 충분히 아이들이 몰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안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새롭게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 있을 텐데 화성의 이음터가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화성 이음터는 화성시에서 학교와 연결하여 건물을 짓고 도서관부터 다양한 청소년 활용 시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음터를 화성 곳곳에 학교와 연결지어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 쪽 청소년들과 교류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지자체의 지원이 정말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학교와 연결되어 있어서 보다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너무 좋아 보였고 실제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런 이음터와 같은 청소년 시설이 온종일 마을학교로 그대로 지정 받고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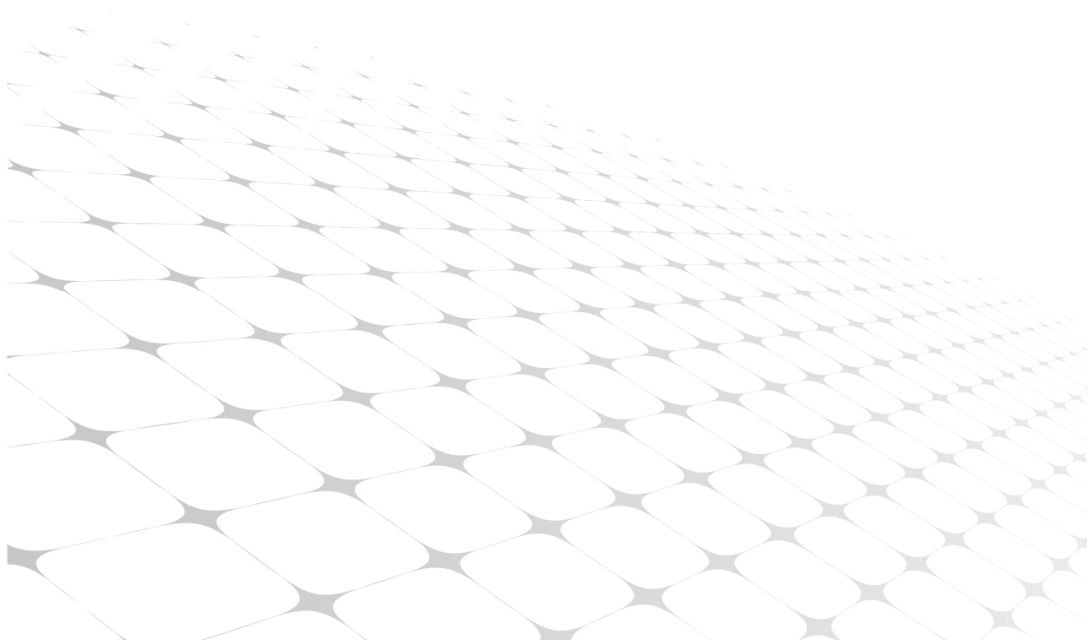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몽실학교는 그 어떤 논리보다도 아이들을 먼저 바라보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몽실학교 설계부터 공간 조성, 교육 내용, 운영 모두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의해 결정되고 운영되었습니다. 그렇게 존중 받은 청소년들은 정말 바르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 결과 청년으로 자라서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후배들을 위해 길잡이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실학교와 같은 청소년 자치 배움터는 자치 배움터답게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종일 돌봄 정책이 나오면서 갈등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갈등을 살펴보니 학부모님들은 아이 맡길 곳이 없다는 생각뿐이고 학교는 힘드니 땀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아이들에겐 학교를 마치고 집이 아니더라도

편하게 있으면서 설 수 있어야 하고, 강요당하는 배움이 아니라 원하는 배움을 찾고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배움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움터를 설계하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종일 돌봄을 생각할 때 아이들 입장에서 공간을 찾고 설계되고 배움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종일 마을학교, 아이들의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몽실 학교에서 이렇게 성장했어요.

장세인(의정부여고)



몽실 학교에서 이렇게 성장했어요.

장세인(의정부여고)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장세인 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몽실 학교와 함께한 저의 성장스토리를 얘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여기가 몽실학교일 때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제대로 된 공간이 없어서 방바닥에서 2~3팀씩 회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처음 했던 활동은 ‘당신의 전단지’라는 마을 프로젝트로 광고를 하기 어려운 전통시장을 위해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어보자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홍보 웹자보와 cf등을 만들었고 몽실학교 길잡이 선생님들의 명함 또한 디자인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마을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의정부 전통 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고 (우리의 이런 작은 움직임에도) 마을 상인 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심 있는 분야별로 고등학생이 모여서 주제를 잡아 논문을 쓰고 발표하는 더혜움 프로젝트에서 공학 팀으로 활동했는데요.(2017년도에 했던 미세먼지 탐지기 사진을 보여주며)이건 저번년도에 했던 더혜움 프로젝트 활동사진입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미세먼지로 주제를 잡았는데요. 학생들이 일과 중 가장 많이 있는 교실 속의 미세먼지 농도 인지가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인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든 탐지기입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주제와 방향을 잡았기에 학교 수행평가와 다르게 더 참여도도 좋았고 제 왜곡된 기억일 수도 있지만 다들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새로 도입한 창업프로젝트에서 ‘위잉위잉’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몽실 학교의 옥상에서 도시양봉을 해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 도시양봉이라는 것이 생소하고 워낙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차근차근 양봉에 대한 지식도 쌓고 벌과 교감도 하면서 이렇게 작은 생명체가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인간들의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제 행동들을 반성하게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양봉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활동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위잉위잉 활동사진을 보여준다.)

사실 맨 처음 프로젝트를 참여할 때는 공동체보다는 저의 호기심과 도전 욕구를 채우는 목표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친구들과 함께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다 같이 해냈을 때의 기쁨을 느끼면서 공동체의식이 함양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몽실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 이외에 학교 밖 친구들이나 마을 주민 분들, 청년들, 다른 학교(다른 지역) 친구들 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공교육에서 피터지게 입시 전쟁을 치르는 학생으로서 획일화된 교육의 모순이나 문제점 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하하)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고 번거로운 활동일 수도 있지만 이 활동을 하면서 저는 성장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몽실 학교가 저에게 주었던 긍정적인 영향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 했는데도 아직 몽실 학교의 장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몽실 학교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친구들에 몽실학교를 소개할 때 ‘나의 힐링 공간이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사실 학교를 끝나고 저의 일과는 방과 후 수업을 듣거나 가끔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도 하는데요.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돈이 없는 저희들은 몽실 학교로 가곤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몽실 학교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하는 것 이상의 ‘쉼’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몽실 학교일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몽실학교가 있기 전에는 의정부 청소년회관이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청소년 회관과 몽실 학교의

차이점을 물으신다면 제 생각엔 몽실 학교는 청소년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한 마디로 우리의 공간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청소년 회관은 저희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마을 복지 센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이점은 되게 사소해보이지만 우리의 공간이라는 자부심은 제가 몽실 학교에 뿌리를 내린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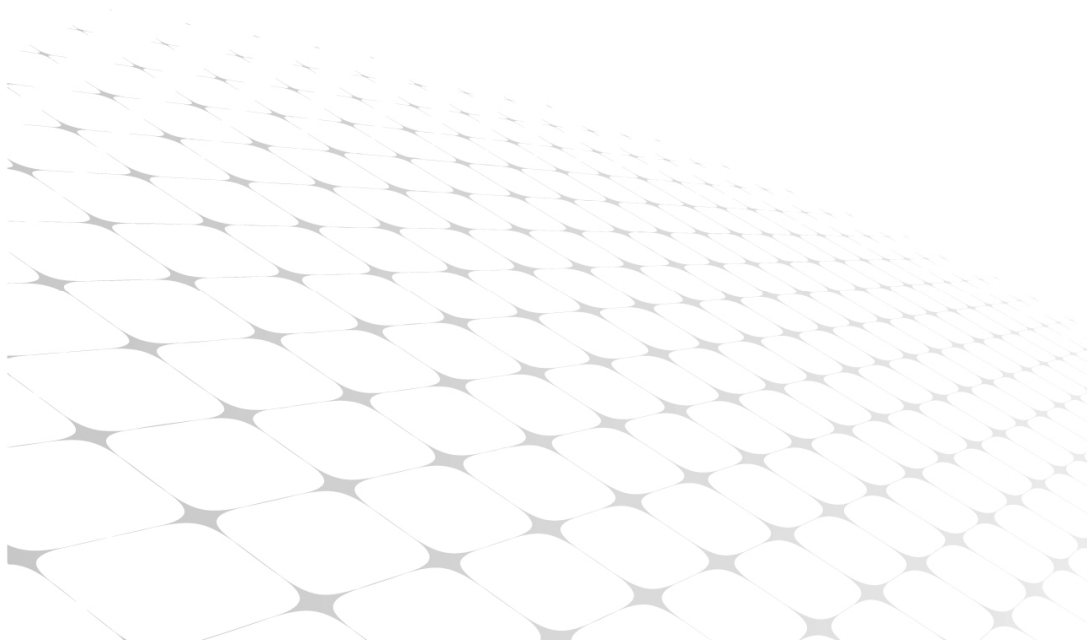
무료로 이러한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기존에 틀에 박힌 공교육을 받던 친구들에게 새로운 배움을 제공했고 단순히 앞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다 많은 학생들이 몽실 학교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넉넉한 지원과 훌륭한 공간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인 시간도 쪼개서 같이 있어주시고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아 허둥될 때 옆에서 도와주신 길잡이 선생님들의 노력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항상 고생하시는 꿈짱 선생님과 그 외 길잡이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몽실학교를 발돋움 삼아 저의 꿈을 위해 더 나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몽실 학교에는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은데요. 그들이 모두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몽실학교가 계속 이어지길 바랄뿐더러 더 많은 친구들이 몽실 학교에서 활동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이 제안하는 국회 몽실 정책 토론회 사례 발표

이예진(몽실학교 유자청)



청소년이 제안하는 국회 몽실 정책 토론회 사례 발표

이예진(몽실학교 유자청)

비어있던 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였던 시절, 17살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시작했던 꿈이룸학교는 이제 몽실학교가 되었다. 올해 난 스무 살이 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몽실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 3년에 넘는 시간동안 다양한 도전과 실패를 겪으며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배움을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인 나에게 몽실학교는 학교였다. 우리는 몽실학교에서 작은학교 유자청을 만들었다. 내가 원해서 자퇴를 결정한 친구도, 대안학교를 졸업해 홈스쿨링을 선택한 친구도, 고등학교 입학에 취소한 친구도 각자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벗어났지만 우리도 어딘가에 속해있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학교를 그만둔 것이 배움을 끝내겠다는 의미가 아닌 더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배움을 스스로 찾아가보겠다는 마음이었다. 유자청에서 우리끼리 커리큘럼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진행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과목이 아닌 인문학, 목공, 악기, 창업도전 등 우리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들을 함께 배웠다. 인문학 수업을 통해 바른 먹거리와 유전자변형식품인 GMO를 공부하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을 했다. 또 페미니즘을 공부하며 여자다움, 남자다움에 갇히지 않은 나답게 사는 법을 알아가고 실천하는 중이다. 목공을 배워 집에서 사용할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브라질 타악기를 배워보기도 했다. 2017년 1년 동안은 창업에 도전하여 실패도 경험했지만 마을문화기획이라는 아이템으로 몽실학교 옥상에서 ‘옥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했다. 영화제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영화를 고르고, 먹거리 부스, 전시, 심야토크까지 모두 기획해서 진행했다. 참여해주신 분들과 우리들 모두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옥땅영화제’를 진행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각자의 장점, 잘하는 일들이 영화제 속에 녹아들 수 있었던 점이었다. 이렇게 나는 유자청에서 함께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함께 놀고, 매일 점심을 같이 해먹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운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움을 즐기며 ‘유유자적한 삶’을 배운다.

유자청 외에도 다른 주말 프로젝트 활동들을 하며 배운 것들이 있다.

먼저 다양한 관계를 쌓고, 협력하는 방법과 마을을 배웠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사랑하게 되었고, 마을 안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의 몽실학교가 되기 전에 꿈의 학교였던 꿈이룸학교는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형 마을학교였다. 꿈이룸학교에서는 마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했는데 처음 마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의 주제는 공간, 길, 사람이었다. 마을에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고, 그 공간들 사이에는 길이 있고, 우리는 그 공간과 길을 사람으로 채워나가자는 의미를 담아서 정했다. 나는 공간팀으로 활동하며 우리 마을에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간들을 고민하고 실제로 그 공간들을 만들어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처음 해보기도 했고 팀장까지 맡아 힘들었지만 매번 새롭고 신기하여 재미있었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강의식 수업에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했다. 정해진 답이 없었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했다. 성별, 나이, 다니는 학교도 모두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같이 맞춰가고, 서로 배워가며 진행하였기에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나보다 어린 친구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한 후의 성취감을 얻게 되었다. 마을 프로젝트는 나에게 우리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은 곳으로 만들었고, 마을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꿈꾸게 만들었다.

또한 내가 재미있고 관심 있는 일을 찾았다. 2016년 어린이날에는 의정부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열었다. 매년 어린이날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는 싶지만 사정이 힘든 부모님들, 나가면 항상 돈만 왕창 쓰고 돌아오게 되는 어린이날에 동네 언니오빠들이 동생들을 돌보아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오전에는 우리들이 부스를 운영하며 놀아주고 오후에는 다 같이 뛰어노는 미니운동회도 준비하여 함께했다. 덥고 힘들면서도 웃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했고, 동네의 어린이들, 언니오빠들, 어른들이 다 함께 즐기며 너무 뿌듯해서 올해도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했다. 어린이날뿐 아니라 10월 말에는 2년째 온 마을 잔치가 열린다. 의정부 동아리 네트워크의 동아리 발표와 꿈이룸학교 마을프로젝트의 체험부스들,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이 운영하는 부스 등으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가득한 마을 축제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다.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준비한 우리들도 행복하게 즐겁게

참여했다. 한 학교의 축제가 아닌 온 마을의 축제를 준비하며 값진 경험을 많이 했다. 어린이날 한마당, 온 마을 축제뿐만 아니라 플리마켓, 토크콘서트 등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경험을 해보며 나는 기획, 진행이 재미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교를 다닐 때, 나는 한 번도 기획자를 진로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항상 나는 왜 꿈이 없을까를 고민했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내가 재미있는, 재능이 있는 일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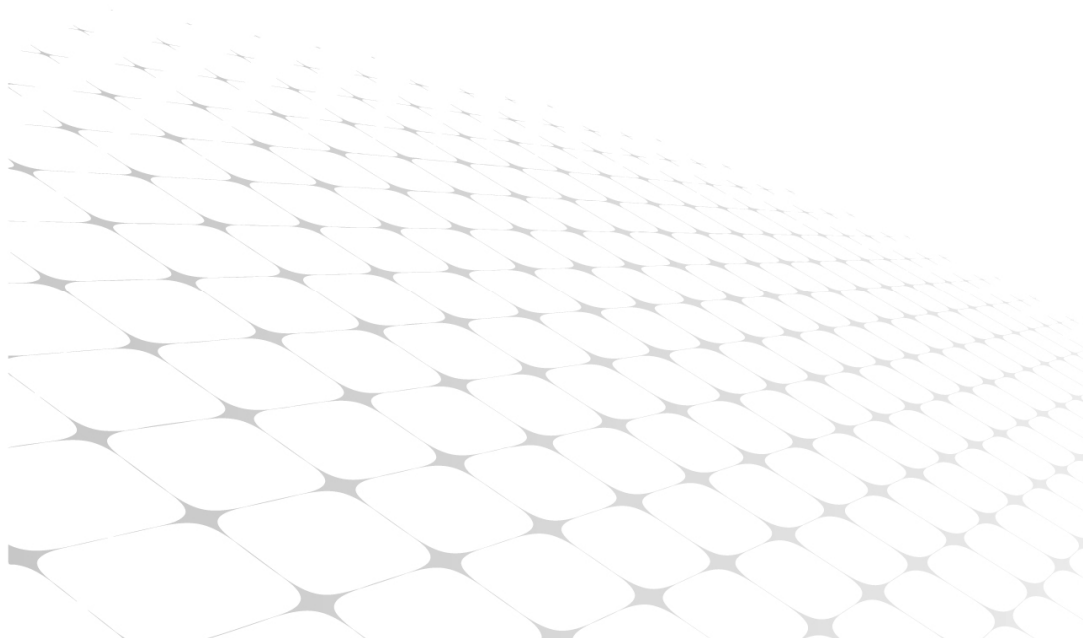
이런 활동을 하고 배우며 3년이 흘렀고, 나는 스무 살을 앞두게 되었다. 나보다 먼저 스무 살이 된 졸업생 언니, 오빠들과 함께 청년협동조합을 준비해서 또 다른 작당을 하는 중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스무살이 협동조합’은 경기북부에서 문화,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협동조합으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스무살이 협동조합’은 몽실학교의 청소년들과 연계하여 활동을 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계속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작당을 만들고 있다.

몽실학교는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배움을 찾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마을에서 함께 더불어 자라며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각자의 재능을 찾고, 본인의 장점을 살린 활동들을 하며 모두가 빛나는 배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강의식수업에서 배우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내 삶의 주체로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배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몽실학교에서는 더불어 살아감과 협력, 공동체를 배웠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찾았다. 학교에서 알려주는 지식과는 다른 배움을 몽실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으로는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몽실학교에서 나를 찾고, 마을에서 더불어 살아감을 배울 수 있길 바란다.

토론문

몽실학교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김용련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몽실학교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김용련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몽실학교는 2014년 의정부 지역의 교사, 지역 주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간 교육 공동체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형성된 마을학교에서 발전하였다. 비몽사몽이라는 청소년 모임을 모태로 꿈이룸 배움터, 경기도 꿈의 학교 중의 하나인 꿈이룸학교 등으로 발전을 하였고, 2016년부터는 (구)경기도교육청 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비로소 몽실학교라는 이름으로 성장의 과정을 거쳐 왔다.

몽실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생 자치 배움을 실천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의 혁신적인 교육 실천의 연장선상에 있는 몽실학교는 혁신교육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 가고 있으며, 학생자치적 배움터이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상징으로 성장하고 있다.

몽실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배움의 욕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공간 활용 등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생 자치 배움터라는 새로운 개념이 정착되고 있다. 몽실학교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도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자발성에 근거한 자치 배움터 운영을 위해 지역의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의 교육네트워크 안에서 몽실 청소년들의 배움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학생들의 실천은 다시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선순환적인 흐름을 형성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비롯하여 지역의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 더 나아가 전국에 있는 다양한 교육공동체에서 “학생 자치 배움터로서 몽실학교”에 대한 기대와 확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다양한 지역에서 현재 의정부

몽실학교를 모델로 하여 거점형 제2, 제3의 몽실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몽실학교는 이제 혁신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그리고 미래교육의 또 다른 비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이다.

몽실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져가는 것과 더불어 몽실학교 교육실천의 확산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의정부 몽실학교의 지속가능한 교육비전과 가치의 재정립에 대한 요구와, 다른 지역에 거점형 몽실학교(센터)가 만들어질 경우 현재의 의정부 몽실학교가 일종의 허브형 센터로 어떠한 역할과 위상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될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몽실학교 구성원 및 관련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몽실학교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몽실학교 조직구성 및 체제를 재구조화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교육시스템과 달리 몽실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배움활동 기획과 실행이라는 미래형 학습 패러다임을 확산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실천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중심 경기혁신교육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몽실학교를 하나의 교육모형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몽실학교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혁신교육의 흐름과 지역사회 협력에 기반을 두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움직임에 새로운 교육 비전과 정책의 대안적 방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위에서 제시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 ☐ 첫째, 몽실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학교운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 ☐ 둘째, 몽실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체제 개편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 셋째, 몽실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실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한다

- 넷째, 몽실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확립과 지역사회 협력 미래형 청소년 자치 배움터 모형을 제시한다.

제3절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경기도교육에서 추진하고 있는 꿈의 학교나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교육혁신의 노력을 담고 있는 다양한 정책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한다. 또한 그 동안 몽실학교 운영에 관련한 다양한 보고서와 사업계획서 및 프로그램 관련 자료들을 통해 몽실학교의 역사적 발전과 운영에 관한 정책적 과정을 살펴본다. 이러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몽실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몽실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이론적 근거를 구축한다.

2. 설문조사

몽실학교 운영 및 청소년들의 배움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몽실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전수조사)조사가 실시되며, 길잡이 교사, 교육청 관계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성인대상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몽실의 교육적 가치, 몽실에서 배움활동을 통한 성장에 대한 인식, 몽실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3. 간담회(FGI)

몽실학교의 체제 및 조직, 재정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외부 학교들과의 연계 등에 관련하여 몽실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련자들(학생, 행정가,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의 인식과 제안을 수렴한다. 그룹 인터뷰의 대상은 몽실학교 학생 그룹, 교육관계자로 몽실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 전문직 및 일반 공무원 그룹, 길잡이 교사 그룹, 그리고 몽실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교사 그룹을 포함한다.

제4절 몽실학교 설문조사 결과

1. 학생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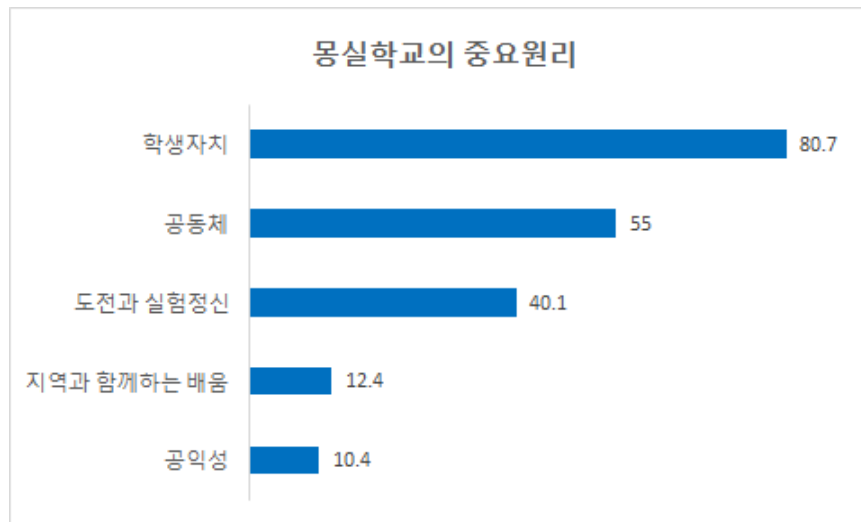
설문조사 대상은 올해 몽실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0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였으며 온라인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조사내용은 크게 몽실학교 가치에 대한 인식, 몽실학교의 학생자치 및 학생주도에 대한 인식, 몽실학교 참여를 통한 학생 성장에 대한 인식, 만족도, 몽실학교 발전방안 등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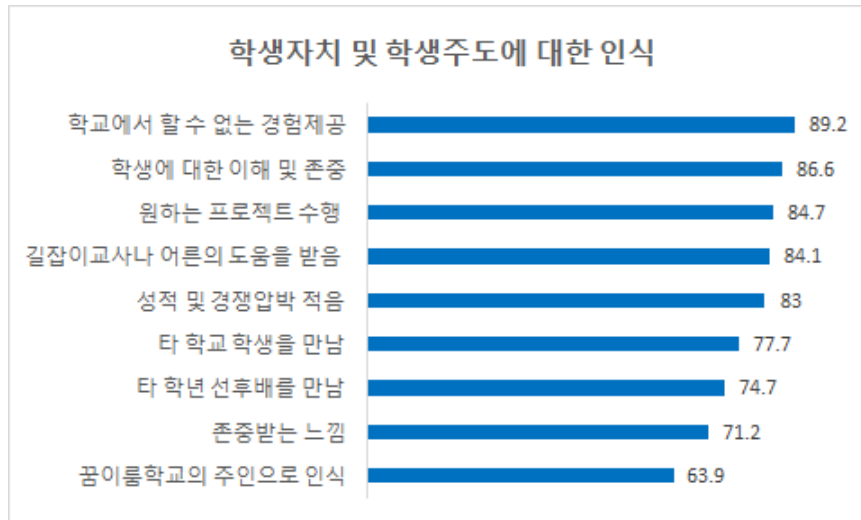
우선 몽실학교 가치에 대한 인식은 몽실학교의 중요 원리, 몽실학교 가치에 대한 인식 여부, 몽실학교 가치 실천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몽실학교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중복 선택하도록 한 결과, 학생자치(우리가 만들어가는 배움)를 선택한 학생들이 80.7%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공동체(55%), 도전과 실험정신(40.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과 함께 하는 배움은 12.4%, '우리의 배움이 남을 이롭게 한다'는 공익성은 10.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몽실학교가 학생자치의 장으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역과 함께 하는 배움과 공익성에 대한 부분은 향후 더 주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몽실학교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71.7%로 나타났으며 몽실학교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비율은 72.3%로 나타났다. 가치를 알고 있다는 학생들보다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학생들의 비율이 약간 더 높다는 것은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몽실학교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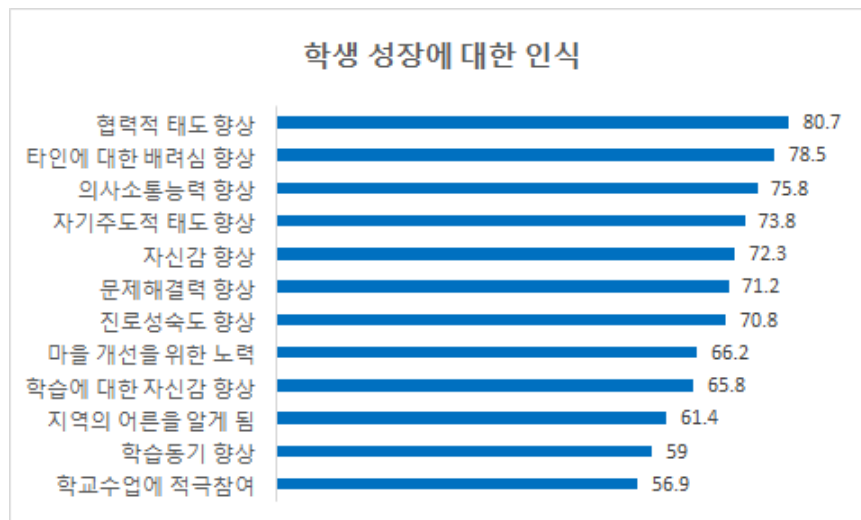
다음으로 학생자치 및 학생주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문항이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길잡이교사들이 학생들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86.6%, 원하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서 좋다 84.7%, 길잡이교사나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8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을 몽실학교의 주인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은 6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길잡이교사의 지지와 존중 및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신을 몽실학교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자신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몽실학교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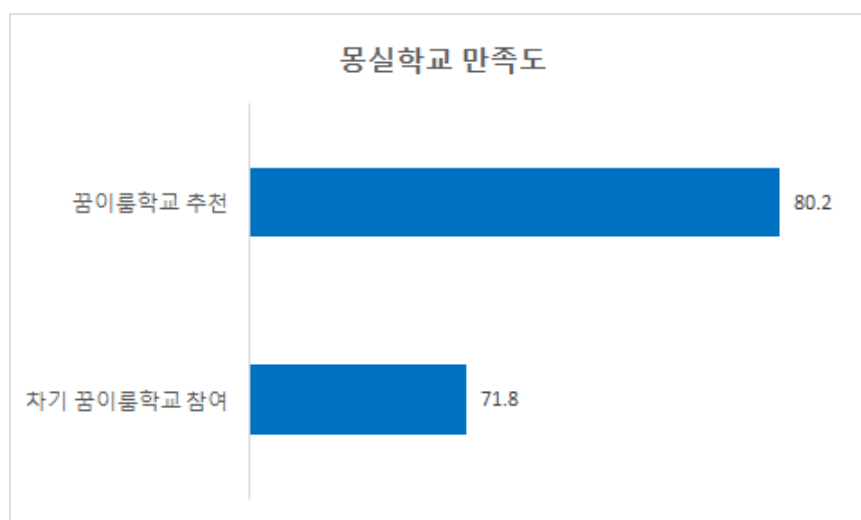
다음으로 몽실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하였다고 느끼는지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협력적 태도가 향상되었다는 비율이 8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심 향상 78.5%, 의사소통능력 향상 75.8%, 자기주도적 태도 향상 73.8% 순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태도, 타인에 대한 배려심,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태도 등은 민주적인 시민역량으로 볼 수 있는데 조사 결과 민주적인 시민 역량군이 가장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원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집단별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태도, 타인에 대한 배려심 및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고 이를 프로젝트 방식을 통해 학습하고 실천하면서 자기주도적 태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민주적 시민역량군 다음으로 많이 향상된 역량은 자신감(72.3%), 문제해결력(71.2%) 등 문제해결력 역량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을 개선을 위한 노력(66.2%)이나 지역의 어른을 많이 알게 되었다(61.4%)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 몽실학교 프로그램이 마을을 위한 활동이나 마을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부족하며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역량군 수준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습에 대한 자신감 향상(65.8%)이나 학습동기 향상(59.0%), 학교 수업에 적극 참여(56.9%) 등은 매우 낮게 나타나 학교교육과 연계된 학습 역량군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몽실학교 프로그램과 학교수업이 내용이나 방법 선정에 있어서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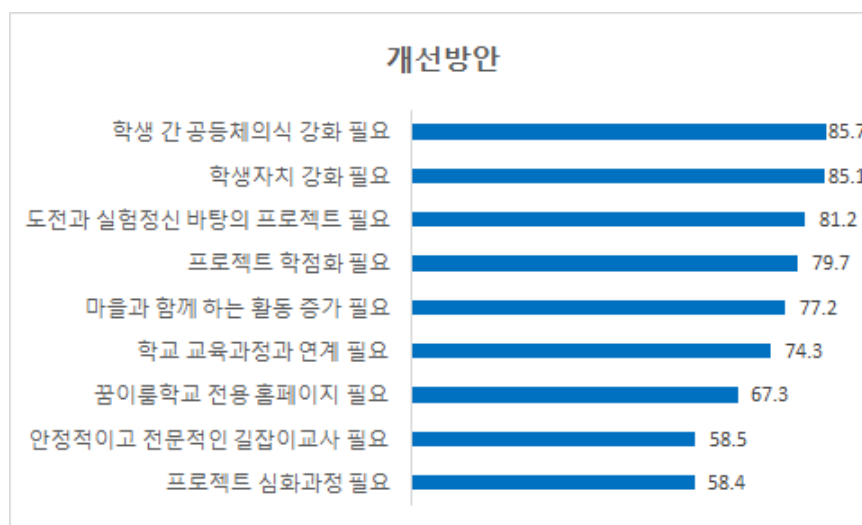
것으로 보인다. 몽실학교에서 학생의 참여도가 높은 것과 달리 학교수업에서는 학생이 참여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몽실학교를 통해 축적된 학습에 대한 주도성이 학교에서는 발휘될 여지가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학생들이 몽실학교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번에도 몽실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은 71.8%로 나타났으며 다른 학생들에게 몽실학교 프로그램을 추천하겠다는 비율은 80.2%로 나타나 학생들이 몽실학교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몽실학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생들 간에 공동체 의식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생자치 강화 필요(85.1%), 도전과 실험정신 바탕의 프로젝트 필요(81.2%), 프로젝트 학점화 필요(79.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길잡이교사가 필요하다(58.5%)거나 프로젝트 심화과정이 필요하다(58.4%)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몽실학교의 중요한 원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몽실학교의 중요한 원리로 학생자치(80.7%), 학생공동체(55%), 도전과 실험정신(40.1%) 등을 꼽았는데 개선방안에 있어서도 학생 간 공동체 의식과 학생자치가 더 강화되어야 하며, 도전과 실험정신 바탕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학생자치, 학생공동체, 도전과 실험정신 등을 몽실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가치가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인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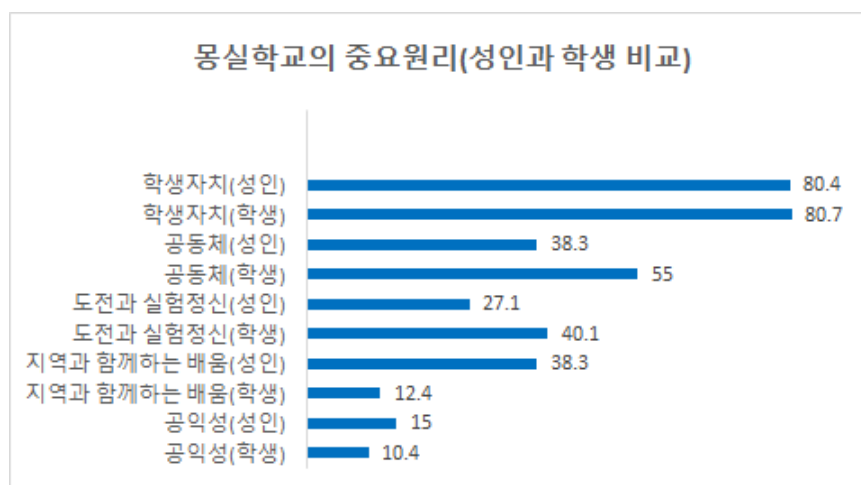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성인대상의 설문은 몽실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몽실학교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였으며 온라인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0.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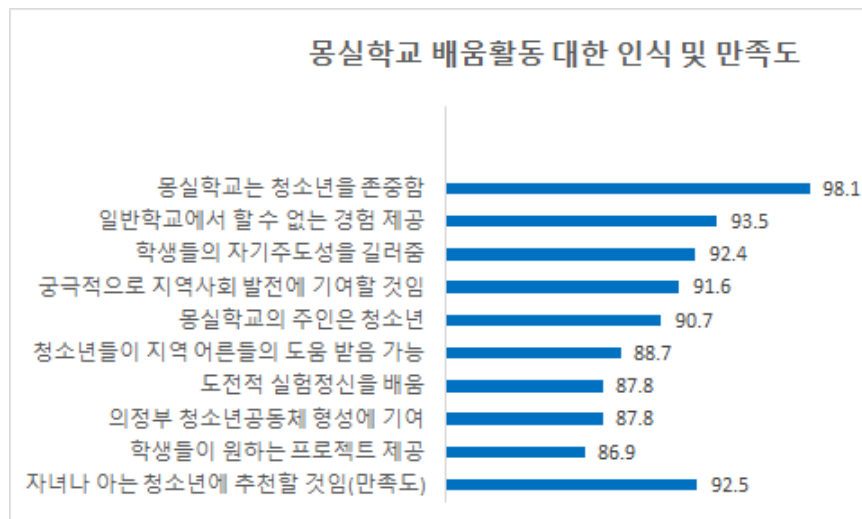
조사 내용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몽실학교가 지향하는 가치, 몽실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움활동에 대한 인식, 몽실학교에 대한 만족도, 몽실학교의 발전방안에 대한 성인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몽실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하여 학생자치, 지역과 함께 하는 배움, 도전과 실험정신, 공동체, 공익성 등을 제시하고 중복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학생자치 80.4%, 지역과 함께 하는 배움 38.3%, 공동체 38.3%, 도전과 실험정신 27.1%, 공익성 15.0%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생자치의 경우 총 응답자 107명 중 80.4%에 해당하는 86명이 선택하여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또한 8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몽실학교의 가장 큰 가치에 대하여 성인과 학생 모두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배움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설문영역인, 몽실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배움활동에 대하여 몽실학교 프로젝트의 주제, 몽실학교의 주제,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제공 여부, 청소년들에 대한 존중, 청소년공동체 형성, 자기주도성, 도전적 실험정신, 어른들의 역할, 지역사회발전 기여여부 등에 대한 인식과 몽실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각 항목 중 몽실학교는 청소년을 존중한다가 9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경험제공 93.5%,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길러준다 92.4%,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91.6%, 몽실학교의 주인은 청소년이다 90.7%, 몽실학교의 청소년들은 지역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88.7%, 도전적 실험정신을 배운다와 의정부 청소년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87.8%,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다 86.9%로 나타나 모든 항목에서 매우 높은 긍정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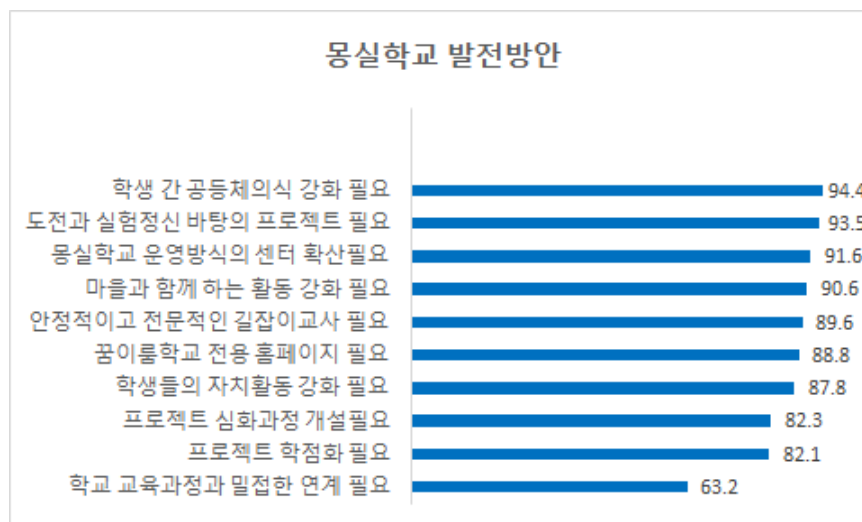
둘째, 위와 비슷한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응답이 80%대를 보인 것에 비해 성인들은 높은 긍정응답을 보였다. 특히 학생들은 몽실학교에 오면 존중받는 느낌이다에 71.2%, 자신이 몽실학교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63.9%로 나타나 성인들에 비해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성인들의 인식이 몽실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하는 원칙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임에 반해 학생들의 응답은 실제 당사자인 자신들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 이로 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타의 항목인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경험제공 89.2%, 원하는 프로젝트수행 84.7%, 어른들의 도움 가능 84.1%로 나타나 학생들의 긍정응답이 어른들의 긍정응답보다는 조금 낮긴 하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높은 긍정응답으로 나타났다.

셋째, 만족도인 자녀나 아는 청소년에 추천할 것이다에 대한 성인들의 긍정응답은 92.5%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75.5%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많은 성인들이 몽실학교 추천 의사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몽실학교에서 활동하거나 가까이서 지켜보는 성인들이 몽실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항목에서 학생들은 80.1%의 긍정응답을 보여 성인들보다 조금 낮게 추천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93.8%의 긍정응답을 보여 성인들보다도 더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설문영역으로, 몽실학교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원, 다양한 프로젝트와 심화과정 프로젝트의 개설 및 학점인정 여부, 학교교육과정의 연계성, 마을과 함께 하는 활동 강화, 학생들의 자치활동 및 공동체의식 강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길잡이교사의 필요성, 전용홈페이지 개설 및 몽실학교 방식의 센터 확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성인들의 긍정응답 결과를 보면 학생 간 공동체의식 강화 필요 94.4%, 도전과 실험정신의 프로젝트 필요는 93.5%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프로젝트의 학점화 필요 82.1%, 특히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 필요는 63.2%로 상대적으로 크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몽실학교의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의 연계여부를 떠나 학교 밖의 지역사회 공간에서 학생공동체와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결과라 여겨진다.



둘째, 발전방안에 대하여 성인과 학생들은 필요성의 정도에 대하여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각 항목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은 성인이 94.4%~63.2%, 학생들은 85.7%~58.4%의 범위로,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긍정응답을 한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학생들 간의 공동체의식 강화의 필요성에 85.7%로 가장 높은 긍정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성인들의 94.4%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긍정응답을 하였다. 이것은 성인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적고 공동체의 필요성이나 개념에 익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위치로부터 나온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여겨진다.

셋째, 학생들의 자치활동 강화 필요에 대한 긍정응답에서 성인은 87.8%, 학생들은 85.1%로 응답하였다. 이는 다른 항목에서 학생들이 대체로 성인에 비해 낮은 긍정응답을 한 것에 비해 ‘학생자치의 필요성’에서는 성인과 비슷한 비율로 긍정응답을 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몽실학교의 가치에 대하여 학생들의 자치실현을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유추되는 부분이다.

넷째, 위의 자치활동과는 다르게 성인과 학생들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 항목들이 있었다. 가장 차이가 크게 난 항목은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길잡이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으로 성인들의 89.6%에 비해 학생들은 58.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젝트 길잡이교사를 직접 맡고 있는 성인들이 느끼는 책임감이나 부담감, 역량의 소진 등이 반영된 측면이 있음에 비해, 학생들은 대체로 현재의 길잡이교사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낸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차이가 많이 난 것은 ‘프로젝트 심화과정의 필요성’으로 성인 82.3%, 학생 58.4%로 나타났다. 이것 또한 길잡이교사로서 좀 더 질 높은 배움을 추구하는 교사의 입장과 현재의 프로젝트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세 번째로 차이가 많이 나타난 것은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로 학생 74.5%, 성인 63.2%로 나타나 이 항목에서는 학생들의 긍정응답이 성인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이곳 몽실학교의 프로젝트 활동과 학교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갖는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변화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와 연계되는 질문인 ‘프로젝트의 학점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성인 82.1% 학생 79.7%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다른 항목에서는 대체로 성인보다 낮은

긍정응답을 보인 것에 비해 이 항목에서는 성인들과 비슷한 긍정응답을 보인 것은, 학교교육의 대상이자 이해당사자들인 학생들이 학교교육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희망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여겨진다.

제5절 몽실학교 간담회(FGI) 결과

1. 면담 대상자 선정 및 조사 방법

면담은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몽실학교 학생(8명), 길잡이교사(6명), 몽실학교와 관계된 교육청 관계자(5명), 인근 일반학교 교사(5명)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의 주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1〉 면담 질문 내용

질문영역	질문내용
몽실학교 비전과 가치	몽실학교의 의미, 몽실학교의 가치, 다른 기관과의 차이
몽실학교 체제 및 운영방안	프로그램 운영방법, 조직과 운영측면에서 어려운점, 조직체계에 대한 논의 몽실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
몽실학교 발전방향과 발전방안	몽실학교의 발전방향과 발전 방안

2. 몽실학교의 비전과 가치

1) 자발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공간

몽실학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협업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공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임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저의 행복을 이룰 수 공간이고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정신적 안정을 주고 이 공간 안에서 자유도 느끼고 있어요.(학생)

몽실학교의 공간은 안전해요. 실패해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안되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
이에요.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어요.(길잡이 교사)

2) 함께 행복하고 서로 성장하는 사람이 중심인 몽실학교

몽실학교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멘토 역할을 하는 교사, 지역사회 주민들도 같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들은 학생들의 활동과 성장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교육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다른 지역에도 청소년 센터가 있고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학생과 길잡이 교사 모두 사람이라고 답하였다. 나이와 경험, 생각과 장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학교보다 다양한 관계를 쌓고 갈등을 해결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몽실학교는 벽이 없어요.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어울릴 수 있는 곳이에요. 절차 등이 없어서
의지만 있으면 돼요. 다른 곳의 프로젝트는 활동중심인데 여기는 사람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
영상 프로젝트를 한다면 영상을 만드는 것만 배우면 끝인데 이곳은 사람과의 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이죠(학생)

몽실학교 학생들은 프로젝트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서는 교과내용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져요. '배우면 도움이 되나요'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서 성장이 발생해요. 결과가 좋지 않은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하나하나의 경험이
학생들이 성찰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꺼예요.(일반학교교사)

3)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배움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몽실학교의 중요한 원리로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교육활동의 원리인 학생자치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경기혁신교육의 철학적 지향인
학생중심교육의 원리가 몽실학교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몽실학교와
다른 교육기관, 센터와의 차별성으로 면담자들은 어른의 관점이 아닌 학생 주도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문화의 집, 청소년 회관과 다른 점은 다른 교육기관은 어른들 관점에서 사용해야 하고 주제가 많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이 공간에서는 정말 자유롭고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것을 실천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학생)

청소년 회관을 먼저 가 보았는데 학생보다는 주민들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청소년 회관은 주어진 것을 선택해야 했고 여기서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서 좋았어요.(학생)

학생들은 몽실학교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배움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의문점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할 때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학생들도 면담에서 볼 수 있었다.

4) 도전과 실험정신

몽실학교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도전하면서 실패의 경험도 있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었다.

몽실학교에서 더혜움프로젝트에 멘토 역할로 참여하고 있고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몽실학교와 학교와의 차이점으로 학교는 학생들 개개인의 욕구를 죽이고 의존성을 키워준다면 몽실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욕구를 살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5)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형성

몽실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통과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지만 실패의 경험 속에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공동체성을 더욱 살리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공동체라는 것이 이 공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공간은 어떤 특정한 ‘우리’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열려있고,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친하다,

같이 산다'가 아니라 함께하면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이 안에서 자존감과 가치들을 실현하며 규칙들을 만들어요(길잡이교사)

6) 짜여진 틀이 없는 미완결 구조의 플랫폼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학생들이 결정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에 활동의 방향과 몇 가지 원칙만 제시하고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활동을 결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몽실학교라는 열린 공간에 미완결된 플랫폼 전략은 학생들이 쉽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었다.

몽실학교는 내가 자유롭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명문대에 가야할까라는 고민에서 벗어나 우리가 찾아갈 길을 스스로 찾게 도와줘요(학생)

3. 몽실학교와 미래교육의 관계

‘미래’라는 말에는 과거와 현재 교육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몽실학교와 미래교육이 연결되는 이유에 대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미래의 시민, 비판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미래의 시민의 모습이 현재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몽실학교의 정신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려면 현재교육과 과거교육과 비교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 좀 더 자유롭고 휴머니즘이 강조되는 것이 미래교육의 방향이 아닐까요?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이 극대화되는 곳이 미래교육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교육의 모습을 봤을 때 과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소수의 공간이라면 지금 여기 몽실학교는 누구나 잘할 수 있고, 각자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공간, 개인의 자존감과 자유함을 찾는다는 면에서 미래교육과 적합하다고 봐요(장학사)

4. 몽실학교 체제 및 운영 현황에서 어려움

1) 학생 프로젝트 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 부족

경기도교육청 (구)북부청사 건물에 몽실학교라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가 탄생했지만 운영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500여명 이상의 학생과 50여개의 프로젝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몽실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원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뒷받침을 해줄 길잡이 선생님이 부족해요. 몽실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졸업생들이 대학교 생활을 병행하면서 몽실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장학사)

2) 몽실학교 예산 편성·사용에 대한 어려움

2018년도에는 몽실학교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50여개의 계획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프로젝트를 할 때 학생들이 스스로 예산을 세우고 이를 시청에서 채용한 담당자가 품위를 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과 사용 문제가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몽실학교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프로젝트형 학교이기에 학생들이 프로젝트별로 매주 회의를 하고 다음 주 프로젝트 활동을 구체화시켜 나가기에 계획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산을 품위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장학사)

몽실학교는 예산계획을 사업에 맞추어 예산계획을 세우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기획하여 운영하는 경우 프로젝트 계획이 중간이 변동이 생기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예산 사용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몽실학교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들

1) 몽실학교 조직체계에 대한 고민

몽실학교의 지속가능성과 지역별 몽실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조직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체계 개편은 몽실학교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직속기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기존 직속기관의 형태로 간다면 몽실학교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직속기관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직속기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한다면 지역과 학교기관장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장점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학사와 주무관이 바뀌면 몽실학교의 문화와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힘을 가져야 하고 아이들이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장학사와 주무관 혹은 길잡이 교사가 힘을 갖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길잡이교사)

2) 프로젝트와 소통의 방법에 대한 몽실학교의 학생들의 고민

2014년 비몽사몽 토론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몽실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학생들은 프로젝트 초기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다가 마지막에는 숫자가 처음보다 줄어드는 것을 보고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한다.

여기가 열린 공간이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기에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막는다’라고 하지만 처음에 500여명정도 왔다가 나중에 숫자가 줄어들 때는 고민을 하게 되요. 감정소비도 컸고요(A 학생)

과거와 달리 몽실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500명 이상으로 많아지고 기간과 주제가 다양한 프로젝트가 50개 이상 생기면서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몽실학교에 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자치와 공동체라는 꿈이룸배움터 초기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처음보다 중간에 빠져나가면 프로젝트가 잘 안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 공동체 결속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리더십이 길러지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저는 프로젝트 할 때 중간에 빠져 나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책무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이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성장발표회까지 몽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요.(C 학생)

한편, 몽실학교 1년차와 2년차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프로젝트 수가 많은 것을 반기고 있었다.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구성원 내에서는 공동체 형성이 잘 되어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신의 관심분야를 찾고 진로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몽실학교가 외연적으로 확장되었고 몽실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형태의 과정 운영은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다양한 소통 방식을 통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공동체성을 기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운영위원회 내에서는 소통이 잘 되지만 운영위원회가 아닌 학생들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관심이 저조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팀장 협의회 등이 있는데 이를 활성화시키고 아래로부터 의견이 올라와서 위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5. 몽실학교 발전 방안

1) 안정적인 조직체계 구축

몽실학교가 지역사회와 학교에 신뢰를 얻고 지금의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학생자치의 지속성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몽실학교 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제시하는 방안, 지역사회·주민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몽실학교 관계자와 길잡이교사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조직체계 시스템은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확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확정,

몽실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 의결권 확보, 독립적인 직속기관 체계 구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기도학생교육원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몽실학교에서의 교육시간과 활동 참가 인원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몽실학교 교육시간 비교

구분	교육 및 연수 시간	인원
경기도학생 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교육 1,696시간(7개 과정, 32기) • 교사연수 2,166시간(7개 과정, 12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3,840명 • 교사 1,429명
경기도유아 체험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교육 254,800시간 (하루 최대 260명 5시간 체험, 일 년 수업일수 19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50,960명(최대수용인원)
몽실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창업프로젝트 2,700시간(30개) - 더혜움프로젝트 800시간(10개) - 견우프로젝트 600시간(8개) - 초등전문프로젝트 150시간(7개) - 꿈이룸공동체 프로젝트 150시간(3개) • 학교연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실학교진로체험학습 1,350시간(30회) - 진로사람책 70시간(10회) • 학교 밖 배움터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960시간 - 몽실 학부모 연수 40시간 - 마을대학 160시간 - 마을교사 양성과정 80시간 • 연수 및 네트워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연수 40시간 - 길잡이교사 연수 20시간 - 청소년 차치매움터 워크숍 18시간 • 총 7,61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5,9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창업프로젝트 400명 - 더혜움프로젝트 100명 - 견우프로젝트 250명 - 진로체험학습 30교 3,000명 - 대학생진로사람책 700명 - 학교밖청소년 15명 - 어린이날 행사기획운영 250명 - 성장발표회 500명 - 몽실정책마켓 300명

현재 몽실학교는 상근하는 파견교사 없이 장학과1명, 장학사1명, 인턴장학사 1명이 교육활동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몽실학교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상근 인력이 필요하다. 상근인력은 경기도학생교육원과 유아체험교육원과 비교해보면 최소한 파견교사 2명,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경력관 1명 정도를 배치해야 한다.

2) 다층적인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몽실학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민관학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주체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독자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고민했다면 교육청, 지자체, 민간이 함께 모여 총체적으로 몽실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지역주민이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언제든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시흥이 지자체, 교육청, 학교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몽실학교도 지역과 거버넌스 구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장학사)

몽실학교의 가치와 교육활동은 다른 교육기관을 선도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를 끌어갈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아쉬워요. 특히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길잡이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되었으면 해요(장학사)

3) 학교와 연계

몽실학교는 공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몽실학교가 학교의 대안은 아니다. 학생들이 몽실학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학교에서 기본 교과 개념에 대해 배우고 이를 토대로 몽실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몽실학교가 학교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의 보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몽실학교 프로젝트를 보면 같은 주제로 공부하여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공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라는 산이 있는데 몽실학교에서는 학생의 욕구에 맞추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일반학교교사)

교사들이 몽실학교에 많이 와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중심 수업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사는 학생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교사 자체가 성장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어요. 아직은 역량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일반학교 교사)

4) 의정부 몽실을 모델화하여 경기지역에 확산하는 방안

몽실학교가 경기지역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게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의정부 몽실학교가 거점 센터가 되어 지역 간 몽실학교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이들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몽실학교의 비전과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몽실학교는 청소년이 스스로 삶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배움터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몽실학교의 정의를 이어가면서 지역별로 몽실학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5대 운영원리는 자발성, 평등성, 민주성, 공공성, 탁월성이예요. 몽실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잘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또한 ‘공공성’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목표로 몽실학교를 유지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원칙들을 공유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몽실학교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몽실학교는 지역별 몽실학교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장학사)

제6절 몽실학교 발전 방안

1. 미래교육으로서 몽실학교의 비전과 가치

1) 배움의 주체로서의 학생자치 강화

몽실학교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성인들 모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몽실학교의 원리는 학생자치로 나타났다. FGI에서도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몽실학교의 가치를 찾았다.

몽실학교의 가치 즉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배움, 지역과 함께하는 배움, 공동체 등은 미래교육에서 지향하는 원리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배움의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학습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자신의 학습내용이 삶과 연계되는 것은 미래교육에서도 중요한 원리이다(조운정 외, 2017).

2) 삶과 삶을 일치시키는 학습

몽실학교에서의 배움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배움이 자신의 삶과 유의미한 것으로 인식되고 실현되기 때문이다.

몽실학교가 삶과 삶을 통합하는 배움터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미래교육의 중요한 지향원리 중의 하나인 삶과 연계되는 학습(조운정 외, 2017)이 이루어진다.

프로젝트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학생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몽실학교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3)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심점

마을교육공동체를 ‘청소년들이 마을에 대해, 그리고 마을 속에서 배우며, 마을을 위해서 활동하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주민과 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소년들을 함께 교육하는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라고 정의할 때 몽실학교는 의정부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조운정 외, 2016).

몽실학교에서 청소년들의 배움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배움의 결과는 다시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상생에 기여하는 선순환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몽실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또한 학생들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확산되는 학습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마을주민이나 지역사회 단체와의 밀접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1) 지역과 연계 방안

- 지역사회 기관(사회적 기관,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는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활동의 자문역할, 촉진자 역할로 참여
- 몽실학교 교육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역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
- 지역의 마을대학을 몽실학교에서 유치하는 방안
-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단체간의 행정적 협력 방안 모색
- 민관학의 탈 중심적 연대 구축

2) 학교와 연계 방안

- 자유학년제 연계: 일반 학교와 연계하여 몽실학교에서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방식으로 주제선택활동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의 자발적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실 수 있다. 몽실학교의 주제선택활동을 한 주에 4시간씩 편성하여 하나의 기간(term)에 운영하고 다른 한 주제선택활동은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다.
- 복합 교육문화 공간: 몽실학교의 우수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몽실학교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교사 연수와 워크숍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몽실학교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 학점제 연계: 몽실에서 배움의 과정과 결과가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점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움활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물론 몽실학교 프로젝트 학점화는 학생의 자발성, 도전정신, 공동체성의 가치 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교육생태계가 확장되고 학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몽실에서의 활동이 학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이 수단이 아니라 삶에서의 배움 그 자체의 목적이 되는 학습사회에서 몽실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은 차곡차곡 쌓여 포트폴리오 역할을 할 수 있다.

3. 길잡이 교사양성 및 처우 개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부족은 몽실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길잡이교사 양성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길잡이교사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길잡이교사의 역할과 어려움에 비해 길잡이교사 처우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 지역 길잡이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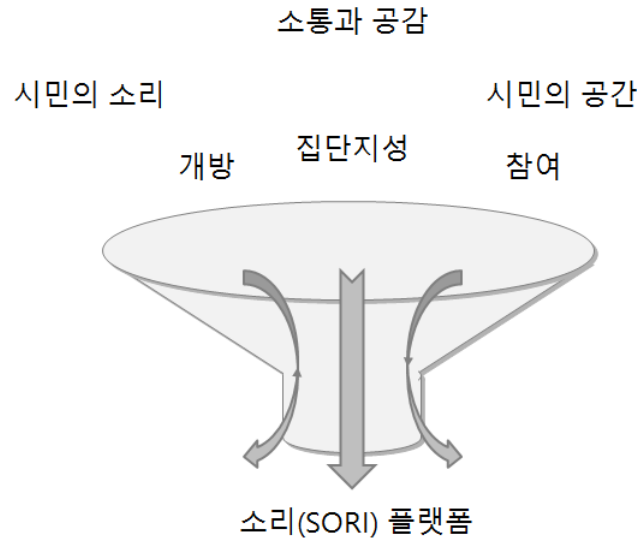
길잡이 교사들의 적정 수준 수당지급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이들의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소통과 홍보를 위한 문화플랫폼(홈페이지) 구축

몽실학교에서의 청소년 자치적 배움활동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지역사회, 다른 지역의 교육공동체들과의 소통과 공유를 위한

문화플랫폼 구축이 절실하다. 또한 의정부 몽실이 허브형센터로 역할을 할 경우 다른 지역의 거점형 센터들과 교류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집단지성을 위한 개방형 지식/정보 플랫폼: 학생의 소리, 지역의 소리, 공동체의 소리를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스피커.



(Space for **O**pen and **R**ounded Ideas)

- 학생참여 플랫폼: 몽실 TED. 학생들의 프로젝트 배움활동 및 그들의 경험과 성장을 짧은 시간에 소개·발표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고 이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다양한 학습자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 몽실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스튜디오를 가칭 ‘몽실 아카데미’로 만들고 이곳에서 학생들의 경험을 발표의 형식으로 촬영하여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몽실학교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국 ‘미디어경청’의 북부제작센터를 활용하여 상황, 장소,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몽실아카데미: 몽실 TED
몽실학교와 청소년방송국의 결합

- 주민참여 플랫폼: 온라인 지식공유 허브. 몽실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주민들 그리고 몽실이 처해있는 마을공동체, 혹은 전국에 있는 배움공동체 누구라도 그들의 교육적 아이디어를 옮겨 놓을 수 있는 열린 지식공유 공간이 필요하다.
- 홍보 플랫폼: 소통과 공감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와 전국에 걸쳐 몽실학교와 같은 학생자치적 배움공동체가 확산될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몽실학교 경험을 전파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소통과 공유의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5. 몽실학교 조직 개편

의정부 몽실학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하고 더 나아가 미래교육의 허브형 센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구조를 개선하여 새로운 역할과 기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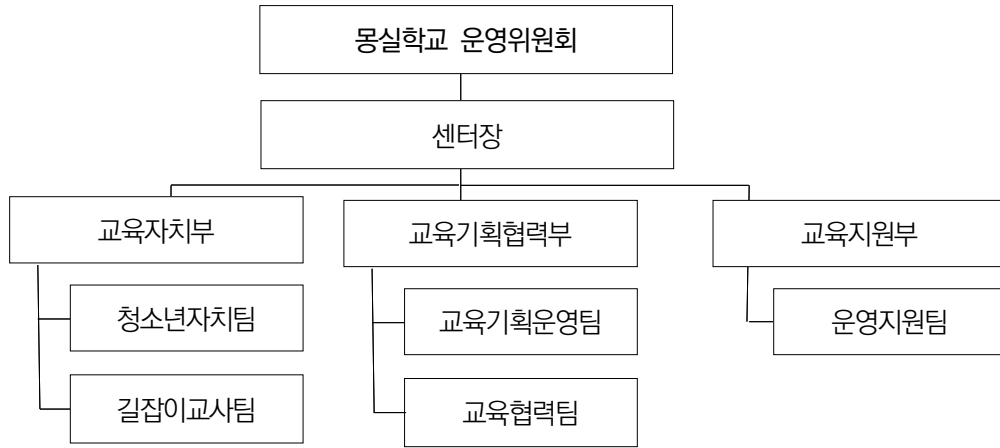
1) 내부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교육청 직속기관화

- 마을교육공동체의 일환으로 지역의 교육인프라가 결합되는 학습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
- 미래교육의 혁신적 방향으로 몽실학교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 학생 자치적 배움공동체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 경기 혁신교육의 허브형 센터로서 역할 수행

2) 조직체계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이 위원장을 하고 구성원의 과반을 학생이 책임지는 의사결정 기구

〈직속기관으로서 몽실학교 조직체계도〉



〈몽실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위촉 방안〉

- 1안: 학생대표로 하는 단일 위원장 직
 2안: 학생대표와 센터장으로 하는 공동 위원장

3) 지역 교육거버넌스 구축

몽실학교가 직속기관화 되었을 때 몽실학교 운영의 독립성 확보,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 설정, 학생 자치 존중 및 지속적 지원 등을 위한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몽실학교를 위한 지역교육협의체 운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실학교의 자치적,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 학생들의 배움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적 역량을 강화하며, -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적 합의를 도출한다
구성	지역교육청, 기초지자체, 의회,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 단체, 관할 교직원 대표 등
운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 및 책무성 강화 - 몽실학교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 지역 및 몽실학교 청소년들의 배움활동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 지역사회 역량강화 등

6. 몽실학교 확산 방안: 몽실학교 지역 거점화 방안

현재의 의정부 몽실학교가 일종의 경기도 허브형 센터가 되고 지역에 거점형 제2, 제3의 몽실학교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몽실학교의 철학과 가치는 공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 미래형 청소년 자치배움터(몽실 가치: 학생자치, 배움의 공동체, 도전과 실험정신, 지역과 함께하는 배움, 공익성)
- 몽실은 지역교육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마을교육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 마을교육공동체와의 연계(주민참여, 지역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배움활동, 지자체의 협력)
- 허브형 센터와 거점형 센터의 유기적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허브형 센터로서 거점형 센터 디자인 지원, 워크숍을 통한 연수 및 교육 지원).
- 센터간의 배움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청소년들간, 길잡이 교사간, 교육행정가간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57 ■ ■

memo

[illegible]



청소년이 제안하는

국회 몽실 정책토론회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다!

| 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실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몽실정책마켓 추진위원회